

**Presbyterians Today**  
2018 Lenten Devotional  
By Jimmie R. Hawkins  
Art by Steven Burgess



## 예수님과 선지자

*마태복음 21:10-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7: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요한복음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Jesus and the Prophets

*Matthew 21:10-11*

When he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in turmoil, asking, “Who is  
this?” The crowds were saying,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in  
Galilee.”

*Luke 7:16*

Fear seized all of them; and they  
glorified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risen among us!” and “God has  
looked favorably on his people!”

*John 4:19*

The woman said to him, “Sir, I see that  
you are a prophet.”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의 선교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평화의 왕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언적 사역을 계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적 선교의 성취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반영과 기도와 분별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매주 다음의 주제를 따를 것입니다:

2 월 14-17

예수님과 선지자

2 월 18-24

선지자와 예수님의 탄생

2 월 25-3 월 3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3 월 4-10

선지자와 예수님의 가르침

3 월 11-17

선지자와 예수님의 가르침 (계속)

3 월 18-24

선지자와 예수님의 기적

3 월 25-31

선지자와 고난 주간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사순절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여정을 위해 힘을 불어 넣어 새로운 방식으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Throughout history, God sent prophets to communicate God's will, saying, "Thus says the Lord God."

There is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mission of Jesus and that of the prophets. The prophets communicated the word of God; Jesus is the Word of God. The prophets predicted the coming of the prince of peace; Jesus is the Prince of Peace. Jesus not only continued the prophetic ministry; Jesus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mission.

This Lent, the prophetic words of Jesus will be our guide to reflection, prayer and discernment.

Each week our journey will follow these themes:

February 14-17

*Jesus and the Prophets*

February 18-24

*The Prophets and the Birth of Jesus*

February 25-March 3

*The Prophet Isaiah and Jesus*

March 4-10 *The Prophets and the Teachings of Jesus*

March 11-17 *The Prophets and the Teachings of Jesus (continued)*

March 18-24 *The Prophets and the Miracles of Jesus*

March 25-31 *The Prophets and Passion Week*

May the prophetic words — spoken once again — be heard in a new way, providing strength not only for the Lenten journey but also for the journey we call life.

예수님과 선지자

Jesus and the Prophets



2월 14일,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February 14

**과거는 현재를 드러냅니다**

**The past reveals the present**

누가복음 24:25-27

Luke 24:25-27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Then he said to them, “Oh,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declared! Was it not necessary that the Messiah should suffer these things and then enter into his glory?” Then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interpreted to them the things about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된 기적임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사역,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빈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Scripture testifies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was a predicted miracle. The prophets predicted the birth,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Jesus. This is the promise of the empty cross.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지식으로 인도하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관계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소식은 희망과 영감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God has given us Scripture to guide us to the knowledge that we are not alone. God does not leave us to wander through life seeking to make sense out of it. Scripture leads us to a relationship with Jesus, the Son of God who saves. When we read the Gospels, the good news of Christ Jesus is filled with hope, inspiration and grace.

주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단순한 감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현재를 향상 시키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Lord, help us to remember the past, not merely for sentimental reasons, but to learn from it and improve the present. Amen.*

2월 15일, 목요일

Thursday, February 15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마태복음 16:13-14

Matthew 16:13-14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Now when Jesus came into the district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at the Son of Man is?" And they sai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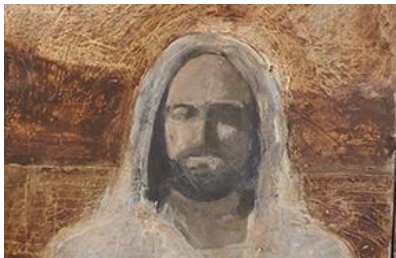
Jesus asked his disciples how others viewed him and then, how the disciples themselves viewed him. Jesus knew who he was. It was others who were confused about his identity.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인가?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있는가?"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We all wonder how we are viewed by others. We ask ourselves, "Who am I in the eyes of other people? How am I viewed by family and friends?" The poet Emily Dickinson penned the poem "I'm Nobody! Who Are You?" While what others think of you matters, of greater importance is knowing that you are a child of God made in God's image. And once you realize that, you can answer the question "Who are you?"

*Lord, we celebrate our identity as children of God. Amen.*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축하합니다. 아멘.



2월 16일, 금요일

Friday, February 16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God cares

신명기 18: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Deuteronomy 18:18

I will raise up for them a prophet like you  
from among their own people; I will put  
my words in the mouth of the prophet,  
who shall speak to them everything that I  
command.

모세가 그들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희망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적 약속의 성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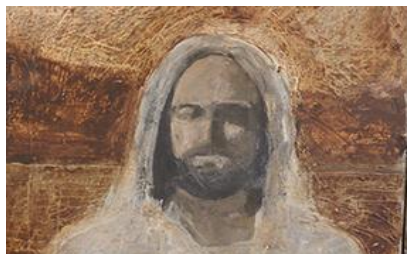
The people of Israel were in despair  
because Moses was about to leave them.  
Yet God gave them a hopeful promise that  
someday God would send another prophe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that prophetic  
promise.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찬  
말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의 편지 카드,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리는  
이메일,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사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There are moments in our lives when we  
need God to speak hopeful words amid a  
desperate situation. And God does speak. A  
card from a long-lost friend, an email  
saying that you are missed and loved, a  
picture that revives memories of a past  
fondly remembered. God is never distant  
and says, "I love you" the very moment we  
need God the most.

주여, 현존과 약속의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이  
사순절에 축복해 내리소서. 아멘.

Lord, bless this season of Lent as we  
cherish the knowledge that you are a God  
of presence and promise. Amen.



2월 17일, 토요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를 칭찬하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절벽 쪽으로  
밀어 붙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당신을  
가장 잘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낯선 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회의와 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심지어  
당신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Saturday, February 17

**No longer a child**

*Luke 4:24*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no prophet  
is accepted in the prophet's hometown."

Jesus went back to his hometown to deliver  
his first sermon. But after a challenging  
message, the same people who praised him  
were now ready to push him over the side  
of a cliff.

Have you ever felt that the people most  
familiar with you know you the very least?  
Sometimes we feel like a stranger among  
family who know our stories but don't  
accept the fact that we have changed. Don't  
let others bring you down by their  
skepticism and doubt. God doesn't doubt  
you. God has been with you all along the  
way.

Don't ever hesitate to go where God leads,  
even back to the place you started.

*Lord, may our faith guide us to the places  
you want us to be. Amen.*



사순절 첫 주간  
선지자와 예수님의 탄생

First week in Lent  
The Prophets and the Birth of Jesus



2월 18일, 주일  
마음 가는 곳이  
집입니다

Sunday, February 18  
**Home is  
where the heart is**

미가 5: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Micah 5:2

But you, O Bethlehem of Ephrathah, who  
are one of the little clans of Judah, from  
you shall come forth for me one who is to  
rule in Israel, whose origin is from of old,  
from ancient days.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예수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The prophet Micah predicted that Jesus the  
Messiah would be born in Bethlehem.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작은  
마을, 큰 도시, 농장, 연안 지역 또는 대학  
도시 등. 어떤 이는 집을 떠나기를  
재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일부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도록 여러모로 도와줍니다.

We all are from somewhere: small towns,  
large cities, farms, coastal areas or college  
towns. Some rush to leave home. Others  
rush back. Some never leave. Communities  
help make us who we are in so many ways.

당신의 공동체와 제공하는 보살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당신에게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준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언젠가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요 14:1-3).

Remember your community and the nurture  
it provided. Reflect upon the people who  
impacted you and gave you a sense of  
identity and purpose. Ultimately, we are  
members of the kingdom of God. We are  
assured by Jesus that he has gone ahead of  
us to prepare a place for us — that where he  
is, one day we will be also (John 14:1-3).

*Lord, bless the lands in which children are  
born; enable those places to provide  
nurture, love and support. Amen.*

주여, 자녀들이 태어난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한 장소가 양육, 사랑 및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2월 19일, 월요일

### 신호를 보기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대한 신호로 예언했습니다. 이 평범한 출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물을 보기 위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보내시는 일정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유부단 할 때에 우리의 복지를 염려하는 사람의 통찰력 있는 조언입니다. 연단의 시간에 갖는 영적 강화의 느낌입니다.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임재의 표적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Monday, February 19

### Seeing the signs

Isaiah 7: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Look, the young woman is with child and shall bear a son, and shall name him Immanuel.

The prophet Isaiah predicted the birth of Jesus as a sign to the world. This ordinary birth has extraordinary significance, a message that God has acted.

Sometimes we are looking so hard for evidence of God that we fail to see God's markers. There are constant signs that God sends our way. Signals that point us in the right direction. Messages that say just what we need to hear. A word of insightful advice in a time of indecision from someone who cares for our well-being. A feeling of spiritual strengthening in a time of trial.

Allow this Lenten season to be a time of discovery of the ways that God speaks specifically to you, communicating God's love.

*Lord, may the signs of your presence become visible through eyes of faith. Amen.*





2월 20일, 화요일

Tuesday, February 20

### 영원한 나라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서  
인도하시는 왕국이 평화와 안전의  
통치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혈족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독교 형제  
자매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삶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전념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세계가 평화의 왕자를 거절 할 지라도,  
우리는 그의 평화 속에 그리고 평화롭게  
살겠다는 결의로 확고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평화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기꺼이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 An everlasting kingdom

Isaiah 9:6

For a child has been born for us, a son  
given to us; authority rests upon his  
shoulders; and he is nam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The prophet Isaiah predicted that the  
kingdom ushered in by Jesus would be a  
reign of peace and security.

God's kingdom is one of loving kinship. As  
Christians, we dedicate ourselves to a life  
under the reign of God, living as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We will live in a world  
without borders dedicated to the rights of  
others as children of God. Even as the  
world rejects the Prince of Peace, we are  
steadfast in our determination to live in and  
for his peace.

*Lord, during this Lenten season bless us  
with peace and the willingness to live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men.*



2월 21일, 수요일

### 탄생의 날에

누가복음 2:36-38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모든 가족의 삶에서 특별한 시간입니다. 위대한 약속과 크나큰 희망입니다. 모든 부모는 신생아의 침대 위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완전함과 충만함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Wednesday, February 21

###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Luke 2:36-38

There was also a prophet,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of a great age, having lived with her husband seven years after her marriage, then as a widow to the age of eighty-four.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ed there with fasting and prayer night and day. At that moment she came, and began to praise God and to speak about the child to all who were looking for the redemption of Jerusalem.

The prophet Anna praised God for the birth of Jesus and acknowledged him as God's redemption.

The birth of a child is a special time in the life of every family. So much promise, so much hope. Every parent has stood over the crib of a newborn child and watched, speechless, with feelings of completeness and fullness.

That is how God views you. God loves you for who you are. God stands over you and watches over you. Who you are is enough for God.

*Lord, we thank you that you see us with eyes of love for who we truly are. Amen.*



2월 22일, 목요일

그 이름은 중요하다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यो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문화권에서는 종교 의식 심의와  
관련하여 아기를 지명하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인생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는 가족, 계절, 사건 또는 사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자산 및 당신의 유산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은 제 이름과 그것이 나타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항상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Thursday, February 22

Your name matters

Matthew 1:23

Look,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name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is with  
us."

For centuries, Christians have known Jesus  
as "Emmanuel, God with Us." This name is  
a constant reminder of the persistent  
presence of God.

In every culture naming a baby is a  
significant act done with ritual deliberation.  
A child's name determines his or her  
success in life. The child can be named  
after a family member, season, event or  
even a thing.

What does your name signify to you and to  
your family? Spend some time to reflect  
upon your name, your heritage and your  
legacy. Jesus is called Emmanuel for a  
reason, for he i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never to leave us or forsake us.

*Lord, you know my name and what it  
represents. May the name of Jesus always  
be important in my life. Amen.*



2월 23일, 금요일

슬픔 가운데서의 믿음

마태복음 2:18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도살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해했고, 그들의 어머니들은  
위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다른 때는 멀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위로가 되고, 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로마서  
8:39).

주님, 아픔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모든  
마음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Friday, February 23

Faith amid grief

Matthew 2:18

A voice was heard in Ramah, wailing and  
loud lamentation,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she refused to be consoled,  
because they are no more.

The prophet Jeremiah predicted this  
slaughter would occur. When Jesus was  
born, King Herod ruthlessly murdered the  
children of Israel, and their mothers refused  
to be consoled.

Terrible situations happen all the time.  
Sometimes close at hand, other times from  
afar. Our faith in God is a constant comfort  
as, even in heartbreak, God is accessible.  
Words of Scripture comfort our broken  
hearts as we read that "there is nothing in  
all creation which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8:39).

*Lord, bless every heart burdened by pain,  
despair and suffering. Breathe your Holy  
Spirit to wipe away every tear from every  
eye. Amen.*



2월 24일, 토요일

어딘가 특별한 곳을 향하여

마태복음 2:14-15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이유로 어떤 장소로 여행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휴식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야 합니다. 어떤 고등학생들은 유학 생활을 하지만 6,500만명의 난민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행입니다. 길을 따라 가면서 우리의 삶, 사고 및 인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적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발견의 길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영적 여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Saturday, February 24

Headed someplace special

Matthew 2:14-15

Then Joseph got up,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by night, and went to Egypt, and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This was to fulfill what had been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Out of Egypt I have called my son."

We travel to various places for different reasons. Sometimes it's for personal recreation, while others are forced to flee for personal safety. High school students travel abroad for study, while 65 million refugees flee hoping for a new life.

To encounter Jesus is to go on a life-changing journey. Along the way, a transformation occurs in our living, thinking and awareness. We become new beings living with a renewed purpose. Sometimes to go on a journey we don't have to travel a great distance. Our faith can take us a long way on the path of discovery.

*Lord, may our faith take us on a spiritual journey of growth and maturity. Amen.*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Second week in Lent  
The Prophet Isaiah and Jesus



2월 25일, 주일

Sunday, February 25

이제는 들립니까?

Can you hear me now?

마태복음 13:14

Matthew 13: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With them indeed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that says: "You will indeed listen,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look, but never perceive."

예수님과 선지자 이사야는 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제한됨을 선언했습니다.

Jesus and the prophet Isaiah declared that revelation was kept from those whose purpose was not to serve God but themselves.

신성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최악의 시간입니다. 의사 소통은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지 않고 활용도 또한 낮았습니다. 가짜 뉴스와 대안적인 진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For those seeking divine truth, this is the worst possible time to live. Communication has never been so widely available but so poorly utilized. Charges of fake news and alternative truths turn us away from God's reality.

우리는 냉소주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무시하도록 허용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듣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말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We cannot allow cynicism to cause us to disregard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Word of God. We go to church Sunday after Sunday, hearing far more sermons than we can ever remember, but trusting that in each one God has something positive to say that will enrich our lives. God is asking each of us, "Can you hear me now?"

Lord, open my heart that my ears may hear your message. Amen.

주님, 나의 귀가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2월 26일, 월요일

### 세상의 빛

이사야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는 모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의 첫 번째 빛은 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화염으로 빛과 따뜻함을 제공하면서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일 1:5). 하나님의 빛의 힘은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요 8:12)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길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Monday, February 26

### The light of the world

Isaiah 9: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has light shined.

We all need light. The first light for a dark night came from fire. Many of us have sat around a campfire as the flames provided both light and warmth.

God is light (1 John 1:5). The power of God's light illumines and warms.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John 8:12). He enables us to see the presence of God and warms us with his love. He is our light and our salvation, and even in darkness we discern the way of God. Our charge is to share God's light with others.

*Lord, shine your light upon our path so that we may follow you wherever you lead.  
Amen.*



2월 27일, 화요일

### 마음의 봉사

이사야 29: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과 이사야는 생명이 없고 내용이 없는 종교를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해 열정을 느끼고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적이고 정서적인 자아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혈액을 뿜어내는 물리적 기관을 말하며 감정적으로 기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는 "연민을 갖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와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여, 주님을 위하여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Tuesday, February 27

### Heart service

Isaiah 29:13

The Lord said: Because these people draw near with their mouths and honor me with their lips, while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and their worship of me is a human commandment learned by rote ...

Jesus and Isaiah criticize religion that is lifeless and sterile. God desires people whose faith causes them to feel passionately and to care wholeheartedly.

The word "heart" is such an important word, with a variety of meanings. For the ancient Israelites, it signified both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self. Today it refers to the physical organ pumping blood and can describe one emotionally. We say, "Have a heart," meaning "have compassion."

Jesus challenges us to have a heart for God, a heart close to God. We are to care for that which God cares for most. God cares for people. God cares for you, me and everyone everywhere. Have a heart.

Lord, give us a heart that seeks after your own. Amen.





2월 28일, 수요일

### 하나님의 가르침

*이사야 54:13*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이들은 예수님의 중심에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교육은 교회 생활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내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인도하시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육, 교육 및 사랑을 제공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입니다.

주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도록 하옵소서. 아멘.

Wednesday, February 28

### God's teaching

*Isaiah 54:13*

All your children shall be taught by the Lord, and great shall be the prosperity of your children.

*John 6:45*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Children have a special place in the heart of Jesus. Therefore, the education of children carries a special role in the life of the church. When his disciples sent the children away, Jesus ushered them in and blessed them by laying hands upon them. It is a blessing when children are taught what it means to be a part of a faith community that provides nurture, education and love.

*Lord, enable the church to teach our children your will. Amen.*



3월 1일, 목요일

Thursday, March 1

한푼을 아껴서

Sparing a dime

이사야 58:7

Isaiah 58: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Is it not to shar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your house; when you see the naked, to  
cover them,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kin?

마태복음 25:35-36

Matthew 25:35-36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food,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 I was naked and you gave me  
clothing, I was sick and you took care of  
me, I was in prison and you visited me.

예수님과 선지자 이사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 장은 자선 사역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사역은 마태복음  
25 장에 있으며, 회중은 선교 사명서에  
그것을 포함시킵니다.

Jesus and the prophet Isaiah share a special  
concern for the poor upon which we base  
our call to alleviate poverty. Matthew 25  
has become the hallmark of charitable  
mission. Ministries are named Matthew 25,  
and congregations include it in their  
mission statements.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로 모험을 할 때,  
우리는 서로 신성한 관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linked to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s we help  
others, our lives are transformed. As we  
venture forth in God's service, we discover  
a sacred connection with each other. In  
Christ Jesus, we are one.

주여, 제가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과 같이 주님과 연결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Lord, help me to be connected with you as I  
am connected with others here on earth.  
Amen.



3월 2일, 금요일

###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선포함

누가복음 4:17-18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설교한 첫 번째 설교는 이사야  
61 장에서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기별을 자신의 최초 선포로 읽을 의도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궁극적인 현시입니다.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서는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 하십니다.  
감정적인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약속 하십니다. 인생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Friday, March 2

### God's Spirit proclaims good news

Luke 4:17-18

....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He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The first sermon Jesus preached was from  
Isaiah 61. There was intentionality on his  
part to read this message from Isaiah as his  
initial proclamation.

God has good news for all, and Jesus is the  
ultimate manifestation of God's good news.  
Everyone needs to hear some good news.  
To the economic poor God promises to  
provide help. To the spiritual poor, God  
promises the kingdom of God. To the  
emotional poor God promises comfort.  
Regardless of your state in life, God has  
good news for you to meet your situation.

*Lord, we become truly free through faith in  
the name of Jesus. Amen.*



3월 3일, 토요일

특별한 시간에 살기

누가복음 4:18-19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시기로 도전하기 보다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회의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가까이 오시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일을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도전할 시간은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왕국이 성립 될 때까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선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Saturday, March 3

Living in a special time

Luke 4:18-19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These are difficult and confusing times for human liberty. But rather than seeing a challenging time as a time of distress, Christians view it as a time of opportunity. Christians call it a *kairos* moment, a moment when the Holy Spirit draws near to do a special work. We do that work when we demonstrate the love of God for all and declare our faith in a God who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Challenging times present us with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times in which we live.

*Lord, may we proclaim your freeing power until your kingdom is established. Amen.*



사순절 셋째 주간  
선지자와 예수님의 가르침

Third week in Lent  
The Prophets and the Teachings of  
Jesus



3월 4일, 주일

Sunday, March 4

오직 하나의 단어: 사랑

**Just one word: love**

신명기 6:4-5

Deuteronomy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alone.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레위기 19:18

Leviticus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or bear a  
grudge against any of your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누가복음 10:25-28

Luke 10:25-28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Just then a lawyer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sai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He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What do you read there?"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he  
said to him, "You have given the right  
answer; do this, and you will live."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사랑의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단합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가질 것입니다.

Throughout the teachings of Scripture,  
the command to love is first and  
foremost. We love God because God  
first loved us. It's simple — love God,  
love others, love yourself. Do this and  
you will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사랑을  
표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Lord, help us to love you and to express  
that love daily. Amen.

3월 5일, 월요일

### 하나님의 방법으로 타인을 대하기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황금률"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부름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함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인도). "자신이 입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타밀어, 스리랑카). "타인이 당신을 노하게 함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그리스). "당신의 상급자가 당신에게 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이탈리아).

그것은 단지 황금률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똑같이 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Monday, March 5

### Treating others God's way

Matthew 7:12

In everything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Jesus' teaching has been coined as "The Golden Rule."

Almost every culture has this call to unselfishness. "Treat others as you treat yourself" (India).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know has hurt yourself" (Tamil language, Sri Lanka). "Do not do to others that which angers you when they do it to you" (Greece). "Treat your inferior as you would wish your superior to treat you" (Italy).

It is not just a golden rule — it is a Christian way of life. This is the law; go and do likewise.

*Lord, enable us to treat others better than we desire to be treated. Amen.*



3월 6일, 화요일

넘치는 눈물

예레미야 13: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와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누가복음 19: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다루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죄와 폭력과 혐오에  
대해 울부짖습니다. 비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유대인  
작가인 엘리 비젤은 자신의 저서 '나이트'  
'에서 하나님께서 증오의 희생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울지만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희생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심으로써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충실한  
인내와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공활이 고통과 아픔의 세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아멘.

Tuesday, March 6

Tears overflowing

Jeremiah 13:17

But if you will not listen, my soul will  
weep in secret for your pride; my eyes  
will weep bitterly and run down with  
tears, because the Lord's flock has been  
taken captive.

Luke 19:41

As he came near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Jesus and the prophet Jeremiah wept over  
the sins of the people.

God cries today over sin, violence and hate.  
The tears of God are shed whenever there is  
tragedy. The late Jewish writer Elie Wiesel,  
in his book *Night*, penned that God suffers  
with victims of hate. But God does not  
simply weep; God reacts by giving strength  
and comfort to victims of pain. The tears of  
God bring faithful endurance and even  
healing. Allow the compassion of God to  
heal your broken heart for a world of pain  
and suffering and allow God to use you to  
bring healing.

Lord, may the tears of God be shed by me;  
for as the heart of God breaks, so does my  
own. Amen.



3월 7일, 수요일

왕따: ‘국가적 재난’

예레미야 20: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  
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마가복음 10: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 받고 잔인하게 처신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학대 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요즘 왕따가 왕성한 것 같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로교회는 왕따를 반대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뉴스 서비스는  
2010년에 LGBT 청소년을 괴롭힘에  
관한 "왕따: 국가적 재난"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혹시 괴롭힘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일어난 일을 공유하도록  
권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괴롭힘을 당하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보내 주옵소서.  
아멘.

Wednesday, March 7

**Bullying: ‘a national disaster’**

Jeremiah 20:7

O Lord, you have enticed me, and I was  
enticed; you have overpowered me, and  
you have prevailed. I have become a  
laughingstock all day long; everyone  
mocks me.

Mark 10:34

They will mock him, and spit upon him,  
and flog him, and kill him; and after three  
days he will rise again.

Jesus and Jeremiah were both bullied,  
ridiculed and brutalized. Jesus has  
compassion for those teased, bullied, picked  
on and abused.

Bullying seems to be rampant these days,  
but there are many speaking up against it.  
The Presbyterian Church has a history of  
speaking out against bullying. The  
Presbyterian News Service ran an article in  
2010 titled “Bullying: A National Disaster”  
about the bullying of LGBT youth.

If you have ever been bullied, know that  
Jesus understands how you feel. If you  
know someone being bullied, encourage  
them to share what is happening and seek  
help.

*Lord, send help to those who are being  
bullied and don't know how to get help.  
Amen.*





3월 8일, 목요일

Thursday, March 8

아프다

Ouch

예레미야 애가 3:30

Lamentations 3: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 but to give one's cheek to the smiter,  
and be filled with insults.

마태복음 5:39

Matthew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But I say to you, do not resist an evildoer.  
But if anyone strike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he other also.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쪽 뺨을 돌리는 명령입니다.

This is perhaps the most controversial of  
the teachings of Jesus: the command to turn  
the other cheek.

우리는 이 구절에 익숙하지만 거의  
적용하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자기 방어를 향한  
자연스러운 성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are familiar with this verse, but seldom  
apply or even defend it. It goes against  
everything we have been taught and our  
natural inclination to self-defense, to "stand  
your ground."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릇된  
일꾼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상호적인  
폭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Yet, like Jesus, we are called to suffer for  
the redemption of the wrongdoer. The  
power of God is manifested when the  
victim overcomes the victimizer, but not  
through reciprocal violence.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마더 엠마누엘 교회와 펜실베이니아 주  
랭카스터 카운티의 니켈 광산에 있는  
아미쉬 공동체는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며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가르침을 가능하게  
한 것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Mother Emanuel Church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and the Amish community  
in Nickel Mines, Lancaster County,  
Pennsylvania, showed us the way when  
forgiveness was chosen over revenge in the  
wake of horrific shootings. And it was faith  
in Christ Jesus as Lord that made this  
impossible teaching possible.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우리의 몸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멘.

Lord, may we be so committed to your word  
that we are willing to offer 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Amen.



3월 9일, 금요일

**God forgives**

호세아 4: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요한복음 8:10-11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실수 한 적이 있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범죄 또는 비행의 혐의에  
직면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죄하시려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기꺼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3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 받았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 할지라도,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Friday, March 9

**God forgives**

Hosea 4:14

I will not punish your daughters when  
they play the whore, nor your daughters-  
in-law when they commit adultery; for the  
men themselves go aside with whores, and  
sacrifice with temple prostitutes; thus a  
people without understanding comes to  
ruin.

John 8:10-11

Jesus straightened up and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She said, “No one, sir.”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and from now on do  
not sin again.”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Have you  
had unhealthy relationships but stayed in  
them anyway? Have you ever publicly or  
privately been confronted with charges of  
sin or wrongdoing? Know that God is not  
standing over you in condemnation. God is  
willing to grant forgiveness for any sin you  
commit. God promises to forgive our sin  
and remember it no more (Jeremiah 31:34).  
In Jesus Christ, you are forgiven.

Lord, even when others condemn us, you do  
not. Thank you. Amen.



3월 10일, 토요일

먼저 첫 번째 것들

호세아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친절의 개인적인 봉헌을 원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온 생애를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지길 희망하면서  
교회에 갑니다. 불행히도 때로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진정으로 합당한 모든 것을 발견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봉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갈 5:22-23).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제공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Saturday, March 10

First things first

Hosea 6:6

For I desire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Matthew 9:13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For I have come to  
call not the righteous but sinners.

Jesus and Hosea inform us that God is  
seeking a personal offering of mercy, love  
and kindness.

As people of faith, we spend our entire lives  
seeking to discover God's will. We go to  
church hoping to grow closer to God.  
Unfortunately, sometimes we learn how to  
be a good church member rather than a  
faithful Christian.

This Lent, may we discover all the things  
we have to offer that are truly acceptable in  
the eyes of God. May we begin by offering  
ourselves, remembering that our greatest  
offerings consist of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Galatians 5:22-  
23). This is what God desires from us.

Lord, may we offer our lives as we grow  
spiritually in our knowledge of God. Amen.



사순절 네번째 주간  
선지자와 예수님의 가르침 (계속)

Fourth week in Lent  
The Prophets and the Teachings of Jesus  
(continued)



3월 11일, 주일

Sunday, March 11

가장 큰 자

The greatest

요나 3: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And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God;  
they proclaimed a fast, and everyone,  
great and small, put on sackcloth.

마태복음 12: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Matthew 12:41

The people of Nineve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because they repented at the  
proclamation of Jonah, and see,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니느웨의 사악한 사람들  
조차도 선지자 요나가 직면했을 때  
믿었음을 그는 애통해 했습니다.

Jesus came proclaiming that the kingdom of  
God was at hand, but people refused to  
believe him. He bemoaned that even the  
wicked people of Nineveh believed when  
confronted by the prophet Jonah.

당신은 불안감을 안겨준 어떤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나는 그가  
처음에는 거부하였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일을 부르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지 않으실 모든 일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부음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줍니다.

Have you ever been given a charge that  
caused you anxiety? Jonah was given a  
mission he first refused. That's how it can  
be when God calls us to a specific task. But  
what is wonderful is that God gives us the  
ability to do God's will. God does not call  
us to do anything that God won't enable us  
to fulfill. God's anointing gives us power,  
courage and love.

주님,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Lord, in our service to you, show us  
something greater than what we have ever  
experienced. Amen.

3월 12일, 월요일

Monday, March 12

예수님을 따르기

Following Jesus

열왕기상 19:19-20

1 Kings 19:19-20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겹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So he set out from there, and found Elisha son of Shaphat, who was plowing. There were twelve yoke of oxen ahead of him, and he was with the twelfth. Elijah passed by him and threw his mantle over him. He left the oxen, ran after Elijah, and said, "Let me kiss my father and my mother, and then I will follow you." Then Elijah said to him, "Go back again; for what have I done to you?"

누가복음 9:61-62

Luke 9:61-62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Jesus said to him,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경험들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요소는  
지체나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찬송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인도에서 사형을 당하는  
어느 기독교 순교자의 마지막 말로  
소개되었습니다. 뒤돌아 보지  
않겠습니다.

To follow Jesus can mean a different experience, depending upon your call. What it does not mean is to hesitate in accepting the call to discipleship. A key element of faith is a determination to follow the Lord without delay or indecision. The hymn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originated in India as the last words of a Christian martyr who was executed while singing. No turning back.

*Lord, keep me steady and determined in the call to discipleship. Amen.*

주님, 제가 제자도의 부름을 받아 한결  
같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3월 13일, 화요일

**Family dynamics**

*미가 7: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누가복음 12: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족은 모든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들이  
가까우며 건강할 때, 그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뉘어 질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며 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가치가  
충돌할 때 가족을 갈라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온전한 경험의 새로운  
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열이 극복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Tuesday, March 13

**Family dynamics**

*Micah 7:6*

For the son treats the father with  
contempt, the daughter rises up against  
her mother, the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your enemies are  
members of your own household.

*Luke 12:53*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mother-in-  
law.

Families are the foundation of any society.  
When they are close and healthy, it's a  
wonderful thing. But when they are  
divided, it's unhealthy and damaging. Jesus  
said that faith in him can divide families as  
values collide. In Christ, we are given a  
new family, fully experienced in the  
church. There we discover what it means to  
live as the family of God where division is  
overcome.

*Lord, we are thankful for the family of  
Christ that brings us together in love.  
Amen.*



3월 14일, 수요일

더 이상 비애는 없다

하박국 2: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누가복음 6:24-26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비애"라는 말을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애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 슬픔  
또는 분노와 비슷합니다. 인생은 일련의  
축복과 불행입니다. 때로는 일들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반면에 우리는 그저  
침대에 누워있기를 바랐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이  
특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구세주와의 관계에서  
축복받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하루를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주여, 나의 비애가 줄어들고 나의 축복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Wednesday, March 14

No more woes

Habakkuk 2:6

Shall not everyone taunt such people and,  
with mocking riddles, say about them,  
“Alas for you who heap up what is not  
your own!” How long will you load  
yourselves with goods taken in pledge?

Luke 6:24-26

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received your consolation. Woe to you  
who are full now, for you will be hungry.  
Woe to you who are laughing now, for  
you will mourn and weep. Woe to you  
when all speak well of you, for that is  
what their ancestors did to the false  
prophets.

Jesus used the word “woe” more than any  
other in Scripture.

Woe is not a word we use much today. It is  
akin to regret, grief or indignation. Life is a  
series of blessings and woes. Sometimes  
things go spectacularly, then there are the  
days we wish we had stayed in bed. God  
wants each day to be spectacular. God’s  
desire is that we experience the blessed  
happiness of a relationship with the savior.  
We do that by focusing on living a life of  
faith that makes each day a good day.

Lord, may my woes be diminished and my  
blessings expanded through faith in you.  
Amen.



3월 15일, 목요일

추수의 주님

학개 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마태복음 9:37-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회원 모집을 위한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는 교회입니다. 대다수의 교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십일조를 바치고 예배를 출석하며 봉사를 한다고 목사들은 추정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성령에 의해 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남편과 아내 듀엣 팀인 Consolers의 노래는 "내가 한 일이 나에 대하여 말해 줄 수 있기를" 전합니다. 일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헌신합니다. 아멘.

Thursday, March 15

Lord of the harvest

Haggai 1:6

You have sown much, and harvested little...

Matthew 9:37-38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One of the most difficult places for recruitment is in the church. Pastors estimate that a small percentage of members offer the vast majority of service, giving of tithes and attending worship. Blessed are those who do. They are participating in God's work of redemption for the world. Their efforts are multiplied by the Holy Spirit.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ould do greater work than even he did. As the song from the Consolers, a husband and wife duo from the '50s and '60s, says, "May the work I've done speak for me." Work on.

Lord, we offer ourselves for the work that others won't do. Amen.





3월 16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 하소서

학개 2: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창 1:2). 구약의 영혼에 대한 단어는  
루아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정신,  
호흡, 바람을 의미하는 프누마입니다.  
하나님의 프누마는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실한  
세상을 위한 신선한 공기의 숨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며  
우리에게 삶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사명을 계속할 힘과 권세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숨을 쉬며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갱신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멘.

Friday, March 16

The Spirit be with you

Haggai 2:5

.... according to the promise that I made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My  
spirit abides among you; do not fear.

John 14:26

But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remind you of  
all that I have said to you.

The Bible begins with the Spirit of God  
moving (Genesis 1:2). The Old Testament  
word for spirit is *ruah*. In the New  
Testament it is *pneuma*, meaning spirit,  
breath and wind.

God's *ruah* is active. God's *pneuma* guides  
and strengthens. God's Spirit is a breath of  
fresh air for a stale world. It connects with  
our spirit and gives us life.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power and authority to continue his mission  
by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llow the  
Spirit of God to breathe upon you and  
renew your strength. Be renewed.

Lord, allow your Spirit to be in our midst  
and revitalize us. Amen.



3월 17일, 토요일

거룩한 의미

학개 1:6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마태복음 11:18-19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함으로 그에게  
올 때, 그는 사랑과 은혜로 당신을  
받아들이십니다. 그의 비유에서, 과부는  
하나님께 두 개의 동전을 헌금  
하였습니다 (눅 21:1-4). 세상에는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길  
바랍니다. 아멘.

Saturday, March 17

Holy significance

Haggai 1:6

You eat, but you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you never have your fill.

Matthew 11:18-19

For John came neither eating nor drinking,  
and they say, "He has a demon."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they say, "Look at him!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Some people are never satisfied. No matter  
what you do, it is never enough.

Jesus knows what this is like and would  
never do that to you. When you come to  
him in faithful sincerity, he accepts you  
with love and grace. In his parable, the  
elderly woman gave a great gift of two  
pennies to God (Luke 21:1-4). What the  
world places little value on, to God it is  
priceless. So are you.

Lord, may your grace be enough for us.  
Amen.



사순절 다섯째 주간  
선지자와 예수님의 기적

Fifth week in Lent  
The Prophets and the Miracles of Jesus



3월 18일, 주일

Sunday, March 18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민수기 21:9

Numbers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So Moses made a serpent of bronze, and put it upon a pole; and whenever a serpent bit someone, that person would look at the serpent of bronze and live.

마태복음 15:30

Matthew 15: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Great crowds came to him, bringing with them the lame, the maimed, the blind, the mute and many others, and they put them at his feet, and he cured them ....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대중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챙길 수 없으며 빈곤하고 병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인류성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는  
대단히 잔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인사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은사입니다.

The masses healed by Jesus are the invisible people the world does not see. Those without health care, impoverished, sick and dying. This blindness, the failure to see the humanity of others, is exceedingly cruel. But Jesus sees them and opens our eyes to see those hidden in plain sight. In the movie *Avatar*, the greeting of "I see you" is an affirmation of another's existence. It is a gift to bless someone with an acknowledgement of their presence.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Do you ever feel that you are not seen? God sees you.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Lord, may we see other people fully and completely as children of God. Amen.

3월 19일, 월요일

Monday, March 19

기적의 일꾼을 위한 기적

A miracle for the miracle worker

열왕기상 19:7-8

1 Kings 19:7-8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The angel of the Lord came a second time,  
touched him, and said, "Get up and eat,  
otherwise the journey will be too much for  
you." He got up, and ate and drank; then  
he went in the strength of that foo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to Horeb the mount  
of God.

마태복음 4:10-11

Matthew 4:10-11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Jesus said to him, "Away with you,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only him.'" Then the devil  
left him, and suddenly angels came and  
waited on him.

엘리야와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합 왕의 엘리야,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사로 잡힌 예수님을  
말합니다.

Elijah and Jesus needed help: Elijah from  
King Ahab; Jesus after his temptation by  
Satan.

도움을 주는 사람조차 어떤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시간에는  
우리가 베푸는 자이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even the one who  
came to help needs help.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come as a provider but find  
that we need provision. That's when God  
shows up and reveals just how much we  
need God and each other.

주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Lord, give me the strength to allow others  
to help me. Amen.



3월 20일, 화요일

새 생명

열왕기상 17:22-23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누가복음 7:14-15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과 엘리야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을 때 개입하여 목숨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죽음의 보류가 깨어  
지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여 된 새로운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임대 계약으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Tuesday, March 20

New life

1 Kings 17:22-23

The Lord listened to the voice of Elijah;  
the life of the child came into him again,  
and he revived. Elijah took the child,  
brought him down from the upper  
chamber into the house, and gave him to  
his mother; then Elijah said, "See, your  
son is alive."

Luke 7:14-15

Then he came forward and touched the  
bier, and the bearers stood still.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rise!"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 gave him to his mother.

Both Jesus and Elijah intervened when a  
mother's only son died and restored his life.

God sent Jesus to be the bearer of new life  
and to release us from the fear of death and  
ensure that death's hold was broken.

Through faith, we are the inheritors of a  
new life granted in the name of Christ  
Jesus. Live your life with a new lease on  
life. There is nothing that can hold you back  
from living the life God intends. Christ has  
risen! And so shall we!

Lord, help us to be bearers of new life for a  
dying world. Amen.



3월 21일, 수요일

Wednesday, March 21

먹을 것

Something to eat

열왕기하 4:42-43

2 Kings 4:42-43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이십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A man came from Baal-shalishah,  
bringing food from the first fruits to the  
man of God: twenty loaves of barley and  
fresh ears of grain in his sack. Elisha said,  
“Give it to the people and let them eat.”  
But his servant said, “How can I set this  
before a hundred people?” So he repeated,  
“Give it to the people and let them eat, for  
thus says the Lord, ‘They shall eat and  
have some left.’”

마가복음 8:8-9

Mark 8:8-9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흠어 보내시고

They ate and were filled; and they took up  
the broken pieces left over, seven baskets  
full. Now there were about four thousand  
people. And Jesus sent them away.

선지자 엘리사와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에 직면했을 때에도 배고픈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The prophet Elisha and Jesus refused to  
send away hungry people even when faced  
with the doubt of their disciples.

우리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극복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We face insurmountable circumstances for  
which we see no viable solution. Jesus told  
us that with humans such things are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Matthew 19:26). God supplies all  
needs if we trust in God’s willingness and  
ability to help.

인간들에게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26).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Lord, multiply our efforts to help. Amen.

주님, 돕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3월 22일, 목요일

Thursday, March 22

씻고 깨끗하게

Wash and be clean

열왕기하 5:10

2 Kings 5: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Elisha sent a messenger to him, saying, "Go,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and you shall be clean."

요한복음 9:11

John 9: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He answered, "The man called Jesus made mud, spread it on my eyes, and said to me, 'Go to Siloam and wash.' Then I went and washed and received my sight."

예수님과 선지자 엘리사는 물로 병을 고쳤습니다. 육체적인 씻음은 신앙을 치유에 연결시키는 영적인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Jesus and the prophet Elisha healed with water. The physical washing represented a spiritual cleansing connecting faith to healing.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죄의 연관성에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질병으로 처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 장). 이 신념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하시는 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가르침을 부인하셨습니다. 참된 연결은 믿음과 치유 사이에 있으며 죄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Jesus challenged the connection between suffering and sin that said that God punished sin with illness (John 9). This belief still exists today. Have you ever wondered if God was punishing you for something you did? Jesus has disavowed this teaching. The true connection is between faith and healing, not sin and punishment. This is the power of a God of love and grace. Be healed by his love!

주님, 저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Lord, heal me spiritually, physically, mentally and emotionally. Amen.



3월 23일, 금요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열왕기상 18: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요한복음 11:41-42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엘리아와 예수님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감의 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직자조차도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신앙의 불을 발화 시킬  
불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는 생각보다 재미 있고 동기 부여가  
좋은 일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Friday, March 23

**Lord hear my prayer**

*1 Kings 18:37*

Answer me, O Lord, answer me, so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s back.

*John 11:41-42*

So they took away the stone. And Jesus  
looked upward and said, "Father, I thank  
you for having heard me.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I have said this for  
the sake of the crowd standing here,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Elijah and Jesus prayed that the people who  
witnessed the miracle would have faith.

We all need moments of inspiration. Even  
clergy need to hear a good sermon. Jesus  
was very aware that some searching for  
truth needed a spark to ignite their faith fire.  
Be someone's inspiration. Share your faith  
story. It's more interesting and motivational  
than you think.

*Lord, use me so that others might believe in  
you. Amen.*





3월 24일, 토요일

긍정적인 증명

이사야 35:5-6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누가복음 7: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예수님께  
묻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기적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기적을 정의합니까?"  
입니다.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신생아의  
웃음소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산산이 조각내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황에게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주여, 주님의 사랑은 저에게 필요한 증거의  
전부입니다. 아멘.

Saturday, March 24

Proof positive

Isaiah 35:5-6

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unstopped; then the lame sha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speechless sing  
for joy.

Luke 7:22

And he answered them, "Go and tell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their sight,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the poor have good news  
brought to them."

John the Baptist was in prison and sent his  
disciples to ask Jesus if he was the messiah.  
Jesus gave as proof the miracles he had  
done.

Have you ever seen a miracle? The real  
question is "How do you define a miracle?"  
God is evident for those who believe in the  
laughter of a newborn baby who was not  
expected to live; for those who hold on to  
faith amid life-shattering sorrow and pain;  
in a pope who inspires atheists to take  
notice. What have you seen and heard in  
your life of faith?

Lord, your love is all the proof I need.  
Amen.



고난 주간  
선지자와 고난 주간

Holy week  
The Prophets and Passion Week



3월 25일, 주일

거대한 입장

스가랴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복음 19:29-30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벧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주간을 시작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상의 재현  
및 행렬을 기념합니다. 종려 주일 예배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종려나무  
잎과 15분 동안 당나귀에 집중함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평화롭게  
겸손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복되도다"(요 12:13). 뒤로  
물러 서지 마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주님을  
축하합니다. 아멘.

Sunday, March 25

A grand entrance

Zechariah 9:9

Rejoice greatly, O daughter Zion! Shout  
aloud, O daughter Jerusalem! Lo, your  
king comes to you; triumphant and  
victorious is he, humb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Luke 19:29-30

When he had come near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place called the Mount of  
Olives, he sent two of the disciples,  
saying, "Go in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tied there  
a colt that has never been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This even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st  
holy week in the life of our faith. Many  
commemorate Passion Week with pageants,  
re-enactments and stations of the cross.  
Palm Sunday worship is filled with palms  
shaped into crosses, and donkeys have their  
15 minutes of celebrity.

Jesus continues to come into our lives  
quietly, peaceably and humbly. And when  
he comes, pick up branches, wave them in  
the air and shout,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John  
12:13). Don't hold back!

Lord, may we celebrate your coming into  
our lives. Amen.

3월 26일, 월요일

### 작은 집안 청소

마태복음 21: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위와 부는 자신의 헌물을 결정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각된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저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영적 장소입니다. 공동체에 입소한  
사람의 신분엔 상관없이 입장하는 모든  
사람은 환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에서 분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치가  
통치하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Monday, March 26

### A little housecleaning

Matthew 21:13

He said 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was outraged  
by what he saw. Status and wealth  
determined one's offering and therefore  
determined one's perceived worth before  
God. And he rebelled.

The church first and foremost is a spiritual  
place of total acceptance. All who enter are  
welcome, regardless of one's status in the  
community. Yet in far too many  
congregations, segregation persists. God  
called the church to be a place where the  
values of God rule. God is not partial;  
neither should we be.

*Lord, bless your church to be your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Amen.*



3월 27일, 화요일

아직 늦지 않습니다

다니엘 11: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마태복음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들음진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  
땅의 마지막 화요일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시다.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  
받지 못한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  
받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시급한 질문에 답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와 강화를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에 걸쳐 견디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 해 주옵소서.

아멘.

Tuesday, March 27

It's not too late

Daniel 11:31

Forces sent by him shall occupy and  
profane the temple and fortress. They  
shall abolish the regular burnt offering and  
set up the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Matthew 24:15

So when you see the desolating sacrilege  
standing in the holy place, as was spoken  
of by the prophet Daniel (let the reader  
understand)...

Jesus spent the last Tuesday of his life  
preparing his disciples for the pending  
moment of hi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The disciples were not ready for what was  
about to occur. What happens when the  
worst possible outcome becomes reality?  
When the one thing we prayed would not  
occur does occur?

God does not send answers to our most  
pressing questions; rather, God comes to be  
in our midst to comfort and strengthen.  
Jesus promised that God would not leave us  
alone in our grief.

Lord, grant us a faith that endures  
throughout difficult moments. Amen.



3월 28일, 수요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4:1-2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수요일은 고난주간의 알 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관례대로  
기도를 위하여 수련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생활의 규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순간, 사건 또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예배, 감사, 자기 헌신, 간구 및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전한 기도  
생활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주여, 기도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줍니다. 아멘.

Wednesday, March 28

Against all odds — pray

Mark 14:1-2

It was two days before the Passover and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looking  
for a way to arrest Jesus by stealth and kill  
him; for they said, “Not during the  
festival, or there may be a riot among the  
people.”

Wednesday is the unknown day of Passion  
Week. One could reasonably argue that  
Jesus withdrew, as was his custom, to pray.

The discipline of a regular prayer life is  
invaluable. There is no moment, event or  
time when we should not engage in prayer.  
We pray long and hard for God’s will to be  
done. Prayers of intercession, adoration,  
thanksgiving, self-dedication, supplication  
and confession. A full prayer life makes all  
things endurable.

*Lord, prayer gives us courage, strength and  
power. Amen.*



3월 29일, 세족 목요일

기억하라

출애굽기 12:43-47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지니라

마태복음 26:26-28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목요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찬이나 성찬이라고도 불리는 성례전의 성만찬을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주님의 만찬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둘 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면 우리는 현재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내일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 토록 동일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8).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충분하길 바랍니다. 아멘.

Maundy Thursday, March 29

Remembering

Exodus 12:43-47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This is the ordinance for the passover: no foreigner shall eat of it, but any slave who has been purchased may eat of it after he has been circumcised; no bound or hired servant may eat of it. It shall be eaten in one house; you shall not take any of the animal outside the house, and you shall not break any of its bones. The whol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celebrate it.

Matthew 26:26-28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a loaf of bread, and after blessing it he broke it,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Then he took a cup, and after giving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On his last Thursday, Jesus gave us the sacrament of Holy Communion, also called the Eucharist or the Lord's Supper.

Both Passover and the Lord's Supper are reminders of God's love. For both, remembrance is ke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By knowing our past, we understand our present. We serve a God of the past, present and tomorrow. Scripture teaches that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Hebrews 13:8). It is in remembering that we learn how to live today.

Lord, may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e enough for us as we proclai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Amen.



3월 30일, 성금요일

빛이 어둠이 되어

이사야 53:12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어떻게 좋은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발생한  
사건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 존재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여행 할 때, 성  
금요일은 끝을 표시하지 않고 시작을  
알립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항상  
원하는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여,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Good Friday, March 30

Light turns to darkness

Isaiah 53:12

.... because he poured out himself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 yet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How can the day when Jesus died be called  
Good Friday? The events that occurred are  
not good, but they serve God's good  
purpose.

As we journey during Lent, Good Friday  
does not mark the end, but the beginning,  
for in his death we are granted the life that  
we always desired. We rely completely  
upon God's willingness and ability to set us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free to live a  
life of love and grace. Be set free by Jesus  
today, now and forever.

*Lord, as Lent ends, may your love never  
come to a close. Amen.*



3월 31일, 성 토요일

Holy Saturday, March 31

조금 더 오랫동안

A little while longer

이사야 53:9

Isaiah 53: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his tomb with the ric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누가복음 23:50-53

Luke 23:50-53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Now there was a good and righteous man  
named Joseph, who, though a member of  
the council, had not agreed to their plan  
and action. He came from the Jewish town  
of Arimathea, and he was waiting  
expectantly for the kingdom of God. This  
man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Then he took it down, wrapped it  
in a linen cloth, and laid it in a rock-hewn  
tomb where no one had ever been laid.

당신이 살았던 모든 것이 해체 되었기에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제하시고 서둘러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림이  
계속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통제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그 안에 진정한 신뢰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It is so hard to wait when everything you  
have lived for has been dismantled. You  
want to do something. But God is in control  
and will not be hurried. We must wait upon  
the Lord, and when God calls, then move.  
But for now, the wait continues. Its purpose  
is to remind us that we are not in control.  
Despite all our efforts to maintain a  
semblance of being in charge, we must  
surrender our will to God's. Only therein  
can true trust ever be realized.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항복하는  
믿음을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Lord, help us to realize that faith involves  
surrender as we trust in you. Amen.





4월 1일, 부활주일

살아 계신 주!

이사야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천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기독교 유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매일 매일의 삶,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 28:19~20).

주여, 그가 살아 계시므로  
우리는 내일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Easter Sunday, April 1

**Because he lives!**

Isaiah 25:8

...he will swallow up death forever. Then  
the Lord God will wipe away the tears  
from all faces, and the disgrace of his  
people he will take away from all the  
earth, for the Lord has spoken.

Luke 24:5

The women were terrified and bowed their  
faces to the ground, but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has  
risen."

Jesus has risen! The women who went to  
the tomb were greeted by an angel who  
announced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wait is over. The silence has been  
broken. Everything has come to  
completion. The words of the prophets have  
been fulfilled in Jesus.

The promise of the resurrection is our  
Christian inheritance. Through faith we  
have life abundantly. Live each day in  
grateful appreciation of what God has done.

And in the words of the Lord Jesu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remember,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19-20).

Lord,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Amen.

**글:** 지미 레이 호킨스 목사는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국장로교 공보실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노스 캐롤라이나 센트랄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 장로교 기독교교육 학교에서 기독교교육 석사학위; Interdenominational 신학 센터/존슨 C. 스미스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노스 캐롤라이나 더럼에 있는 코버넌트 장로교회의 목사로 일했다. 이전에는 버지니아 서부의 그레이스 장로교회, 홈즈 기념관 및 트리니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사했다.

그는 유니온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이사회 이사이다. 그는 몇몇 종교 간/에큐메니칼 및 비영리 단체 의장을 맡았다. 호킨스의 지역 사회 사역은 2013년 초부터 윤리 월요일 운동의 리더가 됨을 포함한다. 그는 노스 캐롤라이나 NAACP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했으며 사역을 통해 정의 옹호에 적극적이었다.

**그림:** 스티브 버제스는 북부 뉴욕주 시골에 살고 있다. 그는 2011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지역 사회 재판소에서 전시되었다. 버제스는 그림을 선물로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뉴욕 살렘에 있는 제일연합장로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판:** 제한된 수의 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1부, \$4.50; 2-9부, \$3.50; 10-99부, \$2.50; 100개 이상, 1개당 \$1.95, 운송 및 취급 비용 추가. 800-533-4371로 전화하여 17116-17-008로 문의 주문한다. 온라인: [www.pcusa.org/today](http://www.pcusa.org/today)  
Copyright ©2017. All Rights reserved.  
*Presbyterians Today*  
Presbyterian Church (U.S.A.)

**About the Author:** The Rev. Jimmie Ray Hawkins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Office of Public Witness in Washington, D.C.

He earned a bachelor of arts in social studies from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a master of arts in Christian education from the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and a master of divinity from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Johnson C. Smith Theological Seminary.

He served as the pastor of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in Durham, North Carolina, from 1996 to 2016. Previously, he served as the senior pastor of Grace Presbyterian, Holmes Memorial and Trinity Presbyterian churches in western Virginia.

He is a board trustee fo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He has chaired several interfaith/ecumenical and nonprofit boards. Hawkins' community ministry includes being a leader for the Moral Monday Movement since its beginning in 2013.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North Carolina NAACP Executive Committee and has been active in justice advocacy throughout his ministry.

**About the Artist:** Steve Burgess lives in rural upstate New York. He began painting in 2011. His artwork has been on display at the local community courthouse. Burgess enjoys giving his paintings as gifts. He is active in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Salem, New York.

**Reprints:** A limited number of reprints are available. Single copy, \$4.50; 2-9 copies, \$3.50 each; 10-99 copies, \$2.50 each; 100 or more, \$1.95 each, plus shipping and handling. Please call 800-533-4371 and ask for 17116-17-008. Order online at [www.pcusa.org/today](http://www.pcusa.org/today)  
Copyright ©2017. All Rights reserved.  
*Presbyterians Today*  
Presbyterian Church (U.S.A.)



